

‘악처’의 독서심리적 근거

김현주*

— <차 례> —

1. 머리말
2. 두 가지 코드의 심리적 메커니즘
 - 1) 집단심리적 코드
 - 2) 개인무의식적 코드
3. 두 가지 코드의 역학관계 및 독서심리적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가문소설에서 악처는 악의 화신으로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가정과 가문,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조장하는 인물로서 과대포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악처를 대하는 당시의 독서 대중들은 자신을 선의 입장에 두고 악처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면서 심리적인 전이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마녀사냥이나 희생양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과 동계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악처에게 모든 악의 요소를 뒤집어씌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집단의 결속을 다짐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집단심리가 투영된 것이다. 다른 한편, 독자는 악처를 통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인 그림자와 유사하다. 독자는 자기 자신이 악처가 되는 심리적 전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게 된다. 그러면서 독자는 자신의 진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정신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양면성의 경험은 독자로 하여금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집단의식을 자체 점검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 깊숙이 무의식적 기저에 내장되어 있는 개인적 윤리성을 호출하고 그

* 서강대 국문학과

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집단심리적이고 개인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서로 혼용되어 작동하면서 서사 속에서 악처의 기능적 역할은 확장되었는데, 이 점이 가문소설에서 악처가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유형화되어 그토록 창궐했던 이유이며, 여성 독자들을 가문소설에 대거 끌어들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가문소설의 악처가 주는 독서적 흥미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때, 이러한 두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심리적 긴장을 경험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악처, 가문소설, 집단심리, 마녀사냥, 희생양 메커니즘, 개인무의식, 그림자

1. 머리말

가문소설¹⁾은 ‘악처(惡妻)’의 온상이요 서식지다. ‘악처’는 가문소설이라는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는 생물이다. 우리는 가문소설에서 수많은 악처들이 등장해서 활약하는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악처가 가문소설이라는 서사적 전개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 악처는 가문소설에서 다양한 갈등 인자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서사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여 서사적 편폭을 다채롭게 하기도 하며, 인물들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서사 진행을 클라이막스로 치켜올리는 데도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²⁾ 또한 악처 화소는 가문소설이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1) 가문소설은 ‘조선조 국문 장편소설’이나 ‘대하소설’로도 불리는데, 이 글에서는 가문과 관련된 현상이나 가문의식이 논의의 초점에 포함되므로 ‘가문소설’이라 하기로 한다.

2) 악처의 서사적 영향 내지는 서사기능적 역할이 크다는 점은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장시광,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한국학술정보, 2006, 16~8쪽 및 여기저기 참조.

나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을 간취하는 데에도 유익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악처 화소 속에는 사회심리적인 의미가 매우 농밀하게 응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악처 화소는 독자로 하여금 매우 복잡다단한 심리적 운동을 불러 일으키면서 가문소설을 흥미롭게 읽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악처 화소에 대한 독자의 독서심리적인 국면을 탐색해보는 작업은 가문소설의 독법적 일단을 해명하는 일인 동시에 가문소설을 읽을 때의 그 ‘흥미’의 배경적 일단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악처’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나 성질이 악독한 아내”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가문소설의 악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정의에는 선천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악독한 아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가문소설의 악처의 경우 선천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악독한지에 대해서는 소설 내부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문소설의 악처가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점이다. 가문소설에서 악처는 선천적인 성격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편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있는지, 가문의 통제하는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 구조인지, 외부에서는 그 가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등의 가문 내외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악처가 일개 가정의 위기에만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문의 위기, 나아가 국가적 위기에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가문소설에서 악처는 가정 내 분란을 일으켜 일개 가정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적 분규의 결과로 그 가정 속한 가문에도 위기가 닥치게 된다. 남편이 관직사탈이나 투옥,

유배 등등의 형벌을 받는단지도 악처의 힘이 막강해 가문의 질서체계를 무시하고 전권을 휘두를 경우 그 가문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일부 악처는 역모를 꾀하는 집단이나 적국의 오랑캐와도 밀통하면서 작당하거나 천자의 해안을 빼앗는 요비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적 위기와의 관련되어 있다. 형벌을 받은 악처의 남편이 가정이나 가문에 복귀하는 대부분의 통로가 외적과의 전쟁에 출전하여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가정 분란을 겪는 가장들이 국가의 근간인 대신 또는 충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악처에 의한 가정 분란은 국가적 안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악처가 이렇게 집안밖으로 폭넓게 활약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점도 그 뒤에 숨어 있는 독서심리적인 정체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케 한다.

가문소설에 등장하는 악인형 여성 인물에 대해 그간의 가문소설 대상 연구에서는 대체로 현실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악녀의 배경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데에 대한 유교사회의 강력한 제재의식이 악녀를 형상화하는 메커니즘이 되었다든가,³⁾ 조선 후기의 정쟁과 전란에서의 대결적 사회현상이 총렬 이데올로기에 의해 내면화되면서 악인과의 대결구도를 낳았다든가,⁴⁾ 요부·악녀·요물로 형상화되는 탕녀의 몸을 통해 보건의대 이러한 탕녀형 인물에 대한 극도의 차별과 배제는 일부다처제의 남성중심적 기존체제를 고수하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다든가,⁵⁾ 철저하게 응징되는 악녀를 통해 여성들의 애정욕망이

3)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2006, 319~348쪽.

4)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 18집, 2008, 557~587쪽.

5)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소설 속 탕녀 연구 -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집, 2008, 197~234쪽.

나 투기를 금지하고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식이 드러난다든가,⁶⁾ 하는 견해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당대 사회의 이념이나 사회현상과 같은 현실적 근거에서 악녀의 등장 배경을 구하는 작업도 물론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이 글은 시각을 달리하여 악처를 읽으면서 독자 내면의 심층심리적 추이는 과연 어땠는지를 문제삼고자 한다. 작가나 서술자, 그리고 사회 객체적 입장에서 보는 의식적 시각이 아니라 독자 내면의 심층 심리, 무의식 차원의 심리 국면을 탐색하는 시각을 취함으로써 독자가 악처를 통해 독서적 흥미를 느끼는 원천적 배경을 탐구하고자 한다.⁷⁾

가문소설에서 악처의 성격과 그 의미영역은 상당히 복잡하다. 약간은 단순화시켜 크게 둘로 나누자면, 하나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악처로서 집안의 갈등을 집밖으로 확장시켜 가문의 위기, 나아가 국가의 위기까지 초래하는 인물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문제가 집밖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집안의 분란에 그치는 인물유형인데, 이러한 인물유형에는 후처나 첩을 비롯하여 그들과 공모하는 계모, 시모, 친모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사이에도 성격적 차이가 약간씩은 존재한다. 이 글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전자의 인물유형, 즉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악처는 대부분 다른 부인들을 시기하여 시녀들과 음모를 꾸미는 쟁송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발전하여 집밖의 악의 무리들을 끌어들이어 자신의 욕망을

6)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형상의 특징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집, 2009, 389~419쪽.

7) 악녀와 관련된 사건 전개가 독자를 상황 속으로 흡입하여 읽는 재미를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념적으로 무장된 작가와 시각을 같이하거나 억압적인 현실이 반영되는 데서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읽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독자의 시각에서 보아야 하며, 나아가 독자의 무의식적 국면을 살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채울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풍량의 위기로 빠뜨리고 오랑캐 등과 작당하여 가문과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한다. 이들 악처 유형에도 내부 편차가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최소한 이들을 한데 묶어 보고자 한다. 이들을 묶어서 보는 이유는 이들이 집안으로부터 집밖으로 분란을 확장함으로써 폭넓은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심리적 작동 국면 또한 다른 인물유형의 그것을 포괄할 만큼 폭넓고도 심화된 양상을 보여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⁸⁾

이 글은 일단 초창기 가문소설인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 그리고 <소현성록>을 포함하여 삼대륙계 장편소설들에 등장하는 전자형 악처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⁹⁾ 비록 이들 악처가 방대한 가문소설군에서 전자형 악처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글이 목표로 하는 악처가 지닌 독서심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악처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배적으로 작용했을 심리작용 국면을 집단심리적 차원과 개인무의식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집단심리적 차원은 무의식적 국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집단의식 내지는 사회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된 심리적 차원이고, 개인무의식적 차원은 개인의 경험이나 상흔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인류가 대대로 적층시켜온 원형적인 무의식 차원이다.

8)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데 그치는 후자의 악처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비교적 차원에서 논급하고자 한다.

9) 구체적으로는 <사씨남정기>의 교씨, <창선감의록>의 조녀, <소현성록>의 명현공주, 정소저, <명주옥연기합록>의 교주, <명주기봉>의 사마영주, 강소저, <천수석>의 이초혜, <유씨삼대록>의 장설혜, <현몽쌍룡기>의 금선공주, <임씨삼대록>의 옥선공주와 남연량, <조씨삼대록>의 장씨(천화군주) 등이다.

2. 두 가지 코드의 심리적 메커니즘

1) 집단심리적 코드

악처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낙인찍힌 존재다. 최소한 소설 속에서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내몰린 존재다. 소설에서 악처가 응징되는 과정을 보면 사회 전체가 악처 따돌리기에 얼마나 골몰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악처는 왜 이처럼 배척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던가? 악처는 가정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성격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뿐만이 아니라 가문의 존립과도 관계되며, 나아가 국가적 혼란에도 간여하는 악의 화신으로 그려져 있는가?

악처의 그러한 행동 유형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조씨삼대록>에서 조운현의 둘째부인 장씨는 실제로는 연왕의 딸 천화군주로서 자신을 장씨가문 사람으로 속이고 조부에 입성한다. 남편과 남부인에게 온갖 악행을 부리다가 축출되어 서촉에 정배된 그녀는 서촉왕 육안걸의 정궁을 독살하고 왕비가 되어 군사를 일으켜 옛원수를 갚고자 하는 인물이다. 또한 <천수석>의 이초혜는 위보형을 여러번 유혹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를 보복하려고 천자에게 접근하여 천자의 총애를 끌어와 신비(新妃)가 된다. 위보형을 살해하려 하나 계속 실패하고 천자의 죽음과 함께 숙청당하니 황소의 난에 가담해 국가에 반란을 꾀하다 죽음을 당한다. <명주옥연기합록>의 교주는 집안에서 행악을 부리다가 여의치 않자 집을 떠나 친모 황씨와 함께 여승 우화법사와 전기를 만나 역모를 위한 작당을 한다. <임씨삼대록>의 옥선군주는 임창흥으로부터 축출되어 사약을 받았으나 안남국으로 흘러 들어가 오랑캐 왕비를 칼로 베고 왕비가 되어 한왕, 옥경군주, 묘월, 능운 등의 무리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악처들은 활동영역을 집밖으로까지 확장하여 국가적 반란의 주동 역할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철저하게 죄를 추궁당하고 징벌된다.

독서 대중들은 자신을 어떤 이념이나 지향의식에 대해 태도를 취함에 있어 자신의 위치를 항상 ‘선(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소한 선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지점 어느 언저리에 가문소설 속의 악처에 대한 시선도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걸로 짐작된다. 따라서 그 지점에 놓여져 있을 악처에 대한 사회 심리 내지는 정치심리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서구에서 실제 있었던 마녀사냥과 결부된 심리적 상황이라든지 희생양을 둘러싼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원용하여 그 실마리를 구해보도록 하겠다. 물론 마녀사냥이라든지 희생양 메커니즘은 현실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배후에 어떤 가상적인 집단심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이라는 가상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준거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녀사냥은 서구사회에서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재판으로서 마녀와 마법사에게 종교적 위기의 책임을 묻고 그 사회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번민에서 탈출하는 비상구로 이용되었다.¹⁰⁾ 희생양 제도는 동서양의 모든 사회에 존재했던 시스템으로서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희생 제의를 통해 자신들을 짓누르는 어떤 집단심리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통합 기제로 이용되었다. 마녀사냥이나 희생양 제도는 모두 현재 위기의 진원지로서 마녀나 희생양을 지목하고, 그들에게 모든 악을 뒤집어씌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 이는 집단의 비

10) 마녀사냥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르박, 『유럽의 마녀사냥』(소나무, 2003, 177~87쪽)과 김난숙, 『마녀사냥에 대한 민중문화사적 접근』(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6, 18~24쪽) 참조.

이성적 폭력이 대체용 희생물을 찾으려 한 것이다.¹¹⁾ 사회집단은 사회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찾지만 찾을 수 없거나 또는 그 궁극적 원인을 애써 외면하면서 당장 조치 가능하고 동시에 그들의 폭력 욕망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을 찾는다.¹²⁾ 파괴적인 충동의 발산을 직접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전가하여 불만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희생물들의 잠재된 악을 완전히 표출시켜서 그들을 어두운 힘으로 가득찬 괴물로 만들어야 한다.¹³⁾ 그것은 육체도 기괴하고 정신도 기괴한 모습을 띠기 일쑤인데, 곧 잘 마귀와 같은 형상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기괴한 모습을 중첩시키는 행위는 폭력의 교묘한 조작적 속성이다. <조씨삼대록>에서 악처가 기괴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예를 들어본다. 다음은 조운현의 둘째부인이 되는 천화군주가 혼인도 하기 전에 요약을 먹여 운현을 자기 방에 두고 요악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묘사 대목이다.

“츠설 천화군주 궁모요계로 도중의 지는는 조한림을 후려다가 제 방의 누이고 궁악을 다하니 좌우를 틀니고 제 혼즈 구호호더니 조성이 반야를 침곤하여 이곳이 아모던 줄 모르고 고티 사름이 이시며 업스를 모르고 봉교 읍녀는 갓가이 디호여 보건대 눈 갓튼 미모의 주귀 편편호여 일빅 화신이 웃는듯 슈려흔 낭미와 달 갓튼 텃정이며 히 갓튼 안광의 단순화협이 아니 고티흔 곳이 업는지라 음네 마음이 어리고 삼흔이 표탕호여 돌 갓튼 정과 블 갓튼 음심이 넘치룰 일코 고티 안져 금야성스는 만큼으로 밧고지 못흐니 접테고 이호여 한업슨 경을 이기지 못흐더니”¹⁴⁾

11)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11쪽 참조.

12) 르네 지라르, 『희생양』, 민음사, 2007, 30쪽 참조.

13) 『폭력과 성스러움』, 162쪽 참조.

14) <조씨삼대록> 권지구 32~3면.

짧은 예이지만 천화군주를 욕정으로 가득찬 붉은 눈과 볼, 그리고 입을 지닌 악귀의 형상으로 그려놓고 있다. 희생물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기괴함은 박해자들이 스스로 만든 괴물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¹⁵⁾ 죄를 다른 대상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을 심리적 용어로 ‘투사(projection)’라고 하는데, 이 투사를 통해 희생물을 향한 박해자들의 심리적인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희생물 그 자체가 지닌 속성이 아닌데도 희생물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은 거기서 해방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나쁜 것은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괴로운 마음을 피하려는 자기방어의 수단이기도 하다. 자기방어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떤 집단 성원의 억압적 무의식이 다른 집단에 투사될 때, 그 집단은 우리와 차별화되고 배타적인 위치에 처하게 된다. 지향하는 집단의 목표가 뚜렷할수록 그러한 배타성은 좀더 강해진다.

가문소설에서 악처를 대하는 독자들의 심리적인 정황이 그와 유사하리라고 판단된다. 악처에게 자신의 억압적 무의식을 투사함으로써 자신과 악처를 철저하게 차별화하고, 악처를 철저하게 괴물로 만들고, 그의 모든 잠재된 악을 드러내어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작동되는 것은 적대와 증오의 패러다임이다.¹⁶⁾ 그런 점에서 가문소설의 악처 화소는 일종의 말에 의한 악마 추방 제의일지도 모른다. 소설은 소설 나름의 형식에 의거하여 여론에 의해 유발된 합법적인 마녀사냥을 수행한 것이다.¹⁷⁾ 희생제의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집단의 단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악처에 대한 희생제의를 집단의 불만을 희생양을 통해 대리해소

15) 『희생양』, 61쪽 참조.

16) 악처가 독자에게 적대와 증오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상순, 「<사씨 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12집, 2001, 139~140쪽 참조.

17) 『희생양』, 25쪽 참조.

하는 동시에 악처를 응징한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만족감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노렸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가문소설에서 악처는 집단심리가 만들어낸 가상적 존재였던 것이다. 가문소설에서 악처의 행위 자체는 현실성을 상당히 초월한다. 남편의 애정이 다른 부인들에게 경사되는 것을 시기하여 다른 부인들을 말로 모함하고 상황을 위장 연출하여 일을 꾸미는 정도의 행위는 현실 세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부인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행동을 불사한다. 매질과 같은 육체적 박대¹⁸⁾는 물론이거니와 독약을 투약하여 살해하고자 하거나,¹⁹⁾ 납치하여 겁탈하도록 지시하고,²⁰⁾ 직접 살해하거나 살해를 지시한다.²¹⁾ 또한 남편의 정적과 손잡고 남편의 지위와 목숨까지 노리는 행위를 한다거나, 도술이나 오랑캐의 수괴와도 연결되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으로 악처를 그리는 것은 사실주의적 근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18) <명주기봉>에서 명린의 처 강소저가 연소저를 구타한다. <창선감의록>에서 조녀는 남소저와 윤소저를 심당에 유폐하고 매질을 가하며 음식을 주지 않는다.

19) <천수석>에서 이초해가 임신 중인 동창공주를 독살한다. <유씨삼대록>에서 장소저가 진양공주를 독살 기도한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씨 일당이 사씨가 임신한 것을 알고 저지하기 위해 낙태약을 투약한다. <창선감의록>에서 조녀가 남소저에게 독약을 먹여 죽게 한다.

20) <유씨삼대록>에서 유현의 처 장소저 일당이 양소저를 겁탈하려 한다. <명주옥연기합록>에서 교주가 벽주에게 술을 먹여 황측으로 하여금 납치 겁탈하려 한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씨 일당이 냉진으로 하여금 유배 가는 사씨를 겁탈하려 한다.

21) <명주기봉>에서 강씨가 연소저를 살해하고자 시도한다. <유씨삼대록>에서 유현의 처 장소저가 양소저를 살해 음모한다. <소현성록>에서 명현공주가 운성의 처 형씨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소무신 무당과 짜고 소운성을 죽이려고 한다.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의 처 정부인이 이소저를 세 번 살해 시도한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씨 일당이 교씨의 아들 장주를 죽이고 이를 사씨에게 뒤집어씌우고, 사씨의 아들 인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

할 수 있다. 악처가 그러하다는 것은 현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다분히 심리적 가상세계에 의거한 측면이 많음을 뜻한다. 악처의 그러한 행위들은 실현가능성을 넘어 그들을 악의 극단으로 몰아붙여 그 극한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행위들의 목록이기 때문이다.

악처들을 인간성을 전적으로 상실한 악의 화신으로 그리는 것은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가문소설에서 악처는 다른 부인들의 인격이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인격모독과 온갖 사형(私刑)을 동원하여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애정 갈구를 넘어 욕정의 화신이 되어 간부를 끌어 들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²²⁾ 일단 가문에서 축출이 된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람을 고용하여 겁탈과 살인을 지시하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영욕을 위하고 다른 부인을 무고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의 희생도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악처들의 입장인 것이다.²³⁾ 이렇게 악처를 인간 말종으로 그리는 것은 그를 악취 나는 전염체로 만들고 어두운 힘으로 가득찬 괴물로 만들어서 한껏 적대와 증오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추방함으로써 이 사회는 안전하다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집단심리의 메커니즘이다. 지라르에 의하면 희생양의 징후는 순전히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²⁴⁾ 민중들은 자신들과 차이나는 것에 대해 사회의 오염원이나 사회 전복의 폭도라는 레테르를 붙여 그 사회에서 내쫓아버리기를 꿈꾼다. 그러자면 그들을 최고로 기괴하게 만들고 괴

22) 대표적으로 <사씨남정기>의 교씨, <창선감의록>의 조녀, <임씨삼대록>의 옥선군주 등이 그러하다.

23) 대표적으로 <사씨남정기>의 교씨를 들 수 있다. 유연수의 첩으로 들어와 아들을 낳은 교채란은 일당들이 자신의 아들 장주를 죽여 사씨에게 뒤집어씌우자고 했을 때 말리지 않고 방관한다.

24) 『희생양』, 38~9쪽 참조.

물을 만들어 바가지를 씌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희생양과 마녀사냥의 심리적인 배후인데, 우리 가문소설에서 악처에 대한 독자들의 집단심리도 그와 동계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들은 현실에서의 행위를 동반한 행사였다는 것과, 소설이라는 가상세계 속에서의 사건상황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에 대해 독자 집단이 취하는 심리적인 국면은 동질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2) 개인무의식적 코드

악처와 관련된 가문소설 독서에서 집단심리적 메커니즘만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독자가 속한 사회의 보호와 안녕을 위한 차원에서만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심리는 자신이 사회의 일원, 또는 가문의 일원이라는 집단의식의 영향을 받아 작동되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은 집단 속의 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형적 무의식이라는 개인의 심층 심리 또한 동시에 환기되었을 것이다. 집단심리와 개인무의식이 작동되는 국면에 어떤 일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심리 정향에 따라, 또는 작품 속으로의 감정이입적 정도에 따라 둘의 표출 정도는 다를 것이다. 개인무의식은 집단보호의식이나 가문의식에 물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자아 내부에서 은밀한 심리적 운동이 벌어지는 무의식적 차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개인무의식은 자아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억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림자’의 정체로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자’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으로서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 반대되는, 그래서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²⁵⁾

25) 이부영, 『그림자-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 한길사, 1999, 41쪽, 74~75쪽.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 이외에,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은 우리가 평소 소름끼치게 증오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남에게 있는 걸로 생각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할 따름이지 그렇게 험악한 존재는 우리 자신의 깊은 내부에 엄연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악처는 이러한 그림자와 비슷한 맥락으로 독자의 독서심리 과정에서 출현하는 존재라고 판단된다. 가문소설의 독자가 미모의 선량한 현모양처에게 자신의 심리적인 감정을 적재하면 적재할수록 그림자로서의 악처의 환기력은 증대된다.²⁶⁾ 독자가 자신의 선(善)함을 믿으면 믿을수록 무의식 속에 잠재하는 악(惡)의 정서 또한 출몰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독자가 양처에게 자신의 감정을 적재할 때, 그의 무의식 속에서는 양처를 괴롭히는 자신 속 또 다른 존재를 상상하고 싶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가문소설 속의 악처는 그림자가 투사된 형상적 존재로 읽혀진다. 우리가 자신의 열등한 측면을 남에게 바가지 씌워서 나타난 존재가 가문소설 속의 악처인 것이다. 그림자는 자신의 열등한 성격을 자신 안에 나타내지 못하고 남에게 투사하길 좋아한다.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에게 덮어 씌우길 선호한다.²⁷⁾ 그렇다고 고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사악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융(C.G.Jung)에 의하면, 그림자는 인간 존재의 하나의 원형, 즉 아키타이프로서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원형적 그림자상이 바깥으로 투사되면 그 대상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된다. 그러

26) 이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비유와 통한다고 본다. 이부영 또한 “자아의 의식 국면의 한 쪽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앞의 책, 41쪽 참조.

27)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될 때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나와 같은 성(性)을 지닌 존재를 향하게 되며,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본다.” 앞의 책, 41쪽.

므로 그러한 대상에게서 사람들은 강렬한 증오감, 혐오감,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전율할 만한 파괴적 충동이 라 할 만 하다.²⁸⁾

그렇지만 그림자가 늘 인간의 마음 속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 자체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을 갖지만 그림자를 환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더욱 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용감하게 자기 내면의 부정적 모습과 대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억압에 사로잡히지 않는 면역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²⁹⁾ 악처를 대하면서 독자들은 자기 내면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섬뜩해하고 전율한다. 악처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부르르 떠는 것은 자기 내면에 그렇게 부정적인 악마가 들어있을 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진정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그러한지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인격 부분을 깨달으면서 성숙해진다고 할 수 있다.³⁰⁾ 그러므로 악처와 관련된 읽기가 독자에게 스토리상의 흥미만 주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악처는 우리가 성숙한 마음에 이르는 심리적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험한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자기 실현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용기를 갖고 그림자와 대면하여 이를 통과하고 지나가야 한다.³¹⁾ 진정한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험한 꼴을 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어두운

28) 앞의 책, 42쪽 참조

29) 앞의 책, 42쪽 참조

30) 앞의 책, 52쪽 참조

31) 앞의 책, 53쪽 참조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 어둡고 음습한 모습에 한편으로는 강렬한 증오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한다는 표시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밖으로 내치면서 끌어안는 모순적 행위이면서도 마귀 같은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의 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악마를 보듬는 대단히 용기있는 역설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독자에게서 일어나는 자기 내면의 모습에 대한 용서와 반성은 악처의 상대방인 양처를 중심으로 한 상대인물들의 행위에서 보다 잘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악처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악처를 원망하지 않는 양처의 모습이라든지, 양처나 양처의 아버지 등이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천지신명이 모함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잘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씨삼대록>에서 예를 들어본다.

①쇼첩이 불혜용우하여 군즈의 관〓 혼 호귀 아니라 외람이 성문덕음을 입스와 구고의 혜택이 일신의 저〓 시니 비록 디약의 형스나 므슴 일을 원호오며 감히 존전을 간범호며 난범호리잇고근는 존당이 친견호신 비니 이는 턴디신명이 쇼첩을 함호미라 사름을 탄홀 비 아니오니 존전의 여러 말슴 발명이 불가호디라 오디 명을 붓즈와 명위를 전호고 심당의 물너가 구고의 원복을 축원홀 썩호미로소이다

②딘왕이 소왈 수〓 와 부인은 근심 마르소서 으너는 복록이 완전지상이라 환난이 비상호나 필경이 턴일을 불지라 하고로 죽으리오 아직 다투의 보치논디로 버려두라

③쇼제 희허왈 여등은 잡설을 말나 내 명되 기박호니 남을 엇지 닻호리오 턴되 쇼쇼호니 언마호여 길운이 도라오리오 쇼군의 효의 반드시 즈의를 감동호고 숙숙을 화우호여 룬의의 즐거운 사름이 될 거시니 엇지 조부야이 초전 성질호리오

④너의 명퇴 박혀여 일시 운익을 엿지 혐의하리오 이제 몸을 보중하면 화익을 면하고 길시를 만나 즐기리니 너는 조금도 관렴치 말지어다³²⁾

①은 양인광의 정실 조월염이 둘째부인 곽씨의 모함을 입어 남편을 비롯한 시부모의 견책으로 유폐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처지를 천지신명이 모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②는 그러한 조월염의 태도에 그녀의 부친인 진왕의 반응이다. ③은 조자염이 악처의 화란을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다. ④는 조자염의 고난에 대해 그녀의 아버지 초공이 운명이 기박하여 액이 낀 것으로 보고 있다. 악처의 악독함을 몸소 경험했으면서도 악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운명으로 돌리는 이러한 태도들에서 독자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선을 어느 정도 내면화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림자에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열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도 함께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자는 역설적으로 창조적인 빛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림자의 어두운 모습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라는 단서가 달려 있지만 말이다. 자기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자이는 자기 내면의 세계라는 소유주를 정복한 존재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때 자이는 진정성을 상실한 채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전체성이 빛과 그림자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듯이 악처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의 모습으로 인식할 때, 인간은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창조와 성숙의 씨앗이다.³³⁾ 그림자는 절대악이 아니라 상대악이

32) 차례대로 <조씨삼대록> ①권지십팔 34~5면, ②권지십팔 108면, ③권지이십칠 103면, ④권지이십구 19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의식화하여 의식에 동화될 때, 그것은 창조적 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³⁴⁾

3. 두 가지 코드의 역학관계 및 독서심리적 의미

가문소설의 악처 관련 서사에서 위의 두 가지 코드는 동시에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코드가 인간의 심리적 반응 체계에서 주축이 되면서 동시에 발현되는 양면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심리는 두 가지 코드를 따라 동시에 작동되되, 다만 서술 시점과 서사적 내용, 그리고 악처의 성격에 따라 어떤 심리체계가 강하게 호출되고 약하게 호출되는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자는 서술 시점과 서사적 내용이나 악처의 성격적 차이에 따라 두 가지 코드의 심리체계를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악처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심리적 양면성의 경험은 악처에 대한 내외 시점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악처 서술 대목에서 시점의 설정에 따라 독자는 안팎의 심리적 거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악처를 외부 시점으로 그릴 때, 독자는 섬뜩한 행위를 일삼는 사악한 악처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멀리 설정하게 되고, 그리하여 집단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집단으로부터 추방해야 할 존재로 악처를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시점은 집단심리적 코드와 관련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술되는 악처에 대해 내부 시점을 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악처가 되는 경험을 한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악처를 자신의 모습으로 전위시켜 받아들이고 이

33) 이부영, 앞의 책, 53쪽, 82~83쪽 참조.

34) 앞의 책, 53쪽, 81쪽 참조.

를 통해 자기 내면 속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초자아적 윤리성을 성찰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시점은 개인무의식적 코드와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독자의 심리적 경험 이 내의 시점에 의해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점이 외부에 있을 때는 집단심리적 국면만 나타나고, 내부 시점일 때는 전적으로 개인무의식적 국면만 나타나는, 시점과 심리의 절대적 일치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악처의 서술을 대하는 독자는 자신의 개인적 처지나 이념적 성향, 또는 독서 당시의 상황적 맥락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심리적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독자는 서술적 내외 시점에 따라 심리적 국면을 설정하면서도 개인적 상황에 따라 악처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악처 서술 대목이 주는 흥미의 하나는 이렇게 서술적 시점과 개인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빚어지는 심리적 거리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는 일종의 역할 이동에 의한 심리 게임이다. 집단적 개체의 입장에서 악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증오심과 공포심, 악처의 내부로 자리 바꿈을 함으로써 느끼는 섬뜩함과 경외심이 뒤섞이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심리 게임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악처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양면성의 경험은 인간의 본능적 심리국면인 사디즘과 마조히즘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디즘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공격적인 행위에서 가학적인 쾌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집단심리적 코드와 통하고, 마조히즘은 공격적인 쾌감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무의식적 코드와 통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심리작용의 코드와 사디즘이나 마조히즘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다.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근원을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서 찾는다거나 변태적 성행위와 성적 쾌감

에서 찾는 정신분석학적 경향과는 악처를 대할 때의 심리작용의 코드가 거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심리적인 코드는 개인의 경험적 기억이 아니라 개인적 무의식의 표출이나 집단적 사회의식이라는 원형적 성질을 통해 작동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성과의 변태적 성행위나 성적 쾌감과 같은 성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적 일탈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보편 심성 차원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또한 마조히즘이 폭력을 통한 피학적인 쾌감에 그치는 데 반해 개인무의식적 코드에서는 자기 내면과의 화해를 통한 승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근본적 본능인 폭력성이 안에서 바깥을 향하거나, 혹은 밖에서 안을 향하는 방향성에서만은 심리작용의 두 코드와 사디즘/마조히즘은 동일하다. 그러한 방향성을 조정함으로써 미묘한 심리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악처 관련 서사 대목 읽기는 복합적인 심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사 내용에 따라서도 심리적 반응 체계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집단심리적 코드는 악처를 기괴하게 묘사하는 장면이라든지, 악랄하고 잔혹한 악처의 행위를 세세하게 그리는 단락이라든지, 극악 무도한 악처가 자기 파멸을 하거나 외부의 힘에 의해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장면에서 더욱 강하게 환기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집단심리적 코드는 집단사회의 단합에 걸림돌이 되는 대상을 악귀처럼 그리고, 그러한 악귀를 철저하게 응징하여 그 집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하게 환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심리적 코드에서는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배타성의 심리가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조선 후기 당시에 한층 고조된 가문의식이나 가부장제와 같은 배타적인 사회의식이 그 심리작용 과정에 가세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개인무의식적 코드는 자기 내면의 악처성

이 거울에 비추인 듯이 나타나는 성질이므로 악처의 상대방들에 대한 서술에서 환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악처의 악랄한 행위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양처의 의식이나 행동거지를 그린다는지, 양처의 친절과 시대 쪽의 의식있는 사람들이 양처에 대해 연민의 목소리를 내고 악처의 개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지, 마침내 개심을 한 악처의 후회하는 모습을 그린다든지 하는 장면에서 개인무의식적 코드는 보다 활성화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양처라는 대타적 존재를 통해 사악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의 모습을 용기있게 대면하여 그것을 끌어안는 포용의 자세가 도출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무의식적 코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윤리의식이 점점됨으로써 독자들은 악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게 되었을 걸로 판단된다.

한편 악처의 성격에 따라서 심리 반응 체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 글에서 다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악처들과는 달리, 가정분란이 가문과 국가의 위기로까지 확장되지 않고 집안의 파문을 일으키는 정도의 악처 유형에 대해서 독자들은 적대와 증오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심리적 국면에 위치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해 상대 부인을 시기하고 음해하는 차원에서는 극도의 혐오의식이나 배제의식보다는 약간의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과 아울러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도 잠재되어 있지 않을까 사려해보는 심리적 국면이 형성될 여지가 보다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순수한 차원의 생충형 악처나 계모 등과 같은 악녀에 대해서는 집단심리적 국면보다는 개인무의식적 국면이 보다 강하게 환기되면서 그림자의 내면화 과정을 통한 자기반성과 갱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 글에서 다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집안 안팎의

분란을 야기하는 악처에 대해서는 집단심리적 국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호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 쪽 경향의 심리 반응 체계만 나타나고 다른 쪽 경향의 심리 반응 체계가 부재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강약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악처의 징치 과정에서도 순수한 차원의 쟁충형 악처나 계모 등과 같은 악녀에 대해서는 개심과 용서의 서사 전개로 귀결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집안 안팎의 분란을 야기하는 악처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는 결말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서술 시점이나 서사 내용, 그리고 악처의 인물유형에 따라 악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달리 설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처를 대하는 독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두 얼굴의 야누스처럼 항상 양면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사회적 인격체로서의 표면의 페르조나와 내면의 자의식이 언제나 갈등하면서 공존하는 심리적 국면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악처 관련 서사에서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페르조나와 내면의식의 공존과 갈등 국면보다는 훨씬 심각한 갈등과 충돌과 전복이 의식의 심층부에서 벌어지는 체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 한편으로는 현실세계에서의 이념이나 제도적 성향에서 영향을 받아 악처를 매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현실세계의 가문의식이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독자들의 의식에 각인된 채로 악처의 행동에 대해 극도의 미움과 배타의식을 형성하는 데 동원된다. 여기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깊이 인식되어 온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러한 집단의식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유교의 전통규범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증오하는 태도를 취하게끔 지도해오고 있었던 터이다. 악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악처에 대해 증오심과 배타의식이 강렬해지면 독자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외경감을 갖게 된다. 심리의 다른 한편으로 독자는 자기 자신이 악처가 되는 심리적 전복을 경험한다. 악처에 대한 공포감과 외경감이 거울에 비쳐져 자신의 형상으로 전위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은 야누스의 두 눈 가운데 하나는 악처를 보고 경악하고, 또 하나의 눈은 악처와 시선을 같이 하면서 스스로 놀라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독자는 자기 자신의 진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에 이르게 되고 자기 내면 속에서 승화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가문소설에서 악처가 대거 등장하고 그에 따라 광범위한 서사 분량에 걸쳐 활약하고 있는 현상과, 조선 후기 소설의 여성 독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가문소설의 독자층으로서 여성들이 대거 흡입되는 현상 사이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지 않을까? 궁궐에 사는 궁중 여인네들을 비롯하여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가문소설을 즐겨 읽었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다.³⁵⁾ 만약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코드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연동하면서 악처 관련 서사 대목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면, 그것을 보다 토크하게 향유할 수 있었던 실제 독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남성 독자들이 악처 관련 서사 대목에 대해 곁들면서 그러한 심리작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같은 성(性)의 위치에서 그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여성들의 독서심리를 자극하여 흥미를 고취시키는 방편으로 가문소설에서 악처가 대거 등장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여성 독자들은 악처를 통해 당시에 공식 담론에 의해 고취되던 가문의식과 가부장제, 그리고 유교적 선악관

35) 대표적으로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319~359쪽 참조.

념을 개입시켜 사회적 안녕을 위한 집단의를 호출하면서 독서하는 흥미를 느끼기도 했으며, 자기 내면에 잠재된 심층 무의식을 끄집어내어 자기 자신의 윤리의식에 대해 성찰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또한 독서하는 흥미를 제고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인 전이와 전복을 통한 일종의 심리적인 역할 게임에 미묘하게 빠져들으로써 독서의 흥미를 느꼈던 것이 악처 관련 서사가 갖는 독서심리적 근거였던 것이다.

여성 독자들의 그러한 독서 행위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영합한 것이라거나, 효의충절과 같은 유교이념을 선양하고자 하는 지배계층의 의도와 부합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다. 물론 악처가 지배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악처를 추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독서 대중들의 성향이 지배계층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독서 대중이 악처를 수용한 것은 전혀 다른 심리적 차원의 문제이다. 결론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면적 독서 과정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처를 읽으면서 여성 독자들이 선과 악의 경계 지점에서 심리 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독서과정 그 자체는 고소설의 독서 흥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4. 맺음말

가문소설에서 악처는 독서대중의 심리적 원형을 건드리는 격발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악처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경험되는 심리적 실체였다. 하나는, 가문과 관련하여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최대의 악으로 규정하는 집단적 내지는 사회의식이 개입함으로써 작동되는 심리

적 메커니즘이다. 독자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자동반사적으로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는데, 그것은 마녀사냥이나 희생양 제도에서의 집단심리적 메커니즘과 동계의 것으로 보아진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 무의식의 심층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신의 어두운 인격에 반응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맞닥뜨림으로써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인 그림자를 인식하고 성찰하고 승화시키는 개인무의식적 심리 반응 체계가 여기에서 활성화되었을 걸로 보아진다. 이러한 집단심리적이고 개인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서로 혼용되어 작동하면서 서사 속에서 악처의 기능적 역할은 확장되었던 것인데, 이 점이 가문소설에서 악처가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유형화되어 그토록 창궐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점이 여성 독자들을 가문소설에 대거 끌어들이는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집단심리적 코드에서는 가문의식과 가부장제, 그리고 유교적 선악관념과 같은 당대의 의식이 좀더 개입하는 양상으로 사회문제에 관한 심리작용이 활성화되었다면, 개인무의식적 코드에서는 인간의 원형적인 무의식이 보다 더 강하게 촉발되는 양상으로 개인윤리성에 관한 심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심리적 양면성의 경험은 독자로서 하여금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집단의식을 자체 점검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 깊숙이 무의식적 기저에 내포되어 있는 개인적 윤리성을 호출하고 그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가문소설의 악처가 주는 독서적 흥미를 심리적 차원에서 진단한 내용이다.

이 글은 악처 화소에 대한 독자들의 심리적 근거를 이론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기에 구체적인 사례 증명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개별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밀도 있고 점착력 있는 증명적 서술이 앞으로 필요하리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시도된 해석적

항목들도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세한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한 약처 유형에 따른 독서심리적 반응 체계의 차이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약녀 유형으로 설정해 보았지만 아마도 더 다양한 성격으로 분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그러한 후속 논의에 이 글은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다.

참고문헌

- <사씨남정기>, 이래종 역, 규장각본 <남정기>, 1999, 태학사.
<창선감의록>, 이래종 역주, 고려대 민속문고본, 200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명주옥연기합록>, 25권 25책, 서강대 소장본
<명주기봉>, 24권 24책,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귀중본총서, 1977
<천수석>,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3, 아세아문화사, 1980
<소현성록>, 조혜란 외, 소명출판, 2010
<유씨삼대록>, 한길연 외, 소명출판, 2010
<조씨삼대록>, 김문희 외, 소명출판, 2010
<임씨삼대록>, 김지영 외, 소명출판, 2010
<현몽쌍룡기>, 김문희 외, 소명출판, 2010
-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고소설연구』 12집, 2001, 121~154쪽.
김난숙, 『마녀사냥에 대한 민중문화사적 접근』,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6, 1~43쪽.
김현주, 『가문소설 투기대목의 화소결합방식과 유형화』, 『고소설연구』 26집, 2008, 119~147쪽.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1~516쪽.
르네 지라르, 『희생양』, 민음사, 2007, 1~350쪽.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319~359쪽
- 브라이언 르박, 『유럽의 마녀사냥』, 소나무, 2003, 1~390쪽.
- 송성욱, 『조선조 대하소설의 서시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쪽.
- 이부영, 『그림자-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 한길사, 1999, 1~334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353쪽.
- 장시광,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한국학술정보(주), 2006, 1~333쪽.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형상의 특징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집, 2009, 389~419쪽.
-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 18집, 2008, 557~587쪽.
-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2006, 319~348쪽.
-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소설 속 탕녀 연구 -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집, 2008, 197~234쪽.

ABSTRACT

Psychic background of the ‘wicked wife’ in Korean Family Novel

Kim, Hyun-jo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quest the psychic background of ‘wicked wife’ in Korean Family Novel. The wicked wife is depicted as an incarnation of the evil and is exaggerated as the most capable woman negatively which can wreck home and family, and nation. There seems to be particular psychic problems on this point. The readers at that period at the spot of goodness execute psychological transference by seeing the wicked wife as the most disgusting person of the society, and as the person that must be banished from the society. It would be psychic mechanism similar to witch hunting and scapegoat. The wicked wife is an imaginative being produced by mass psychology. On the other hand, readers see the most hatred character in inner themselves. It is similar to shadow, inner darkness companion. The readers are surprised at themselves’ image through the psychological turnover toward wicked wife. And they self-examine themselves’ true image. They experience psychological double-sidedness through collective psychic mechanism and individual unconsciousness mechanism. Thereby they examine group consciousness demanded by the society and evoke individual ethics hidden in their inner side. This psychological process seem to be the background of the reading interests of the readers at that period. This point is the reason why many stereotyped wicked wives exist in Family Novel, and the reason why lots of feminine readers participate at the reading of Family Novel.

* Sogang University

Key Words wicked wife, Korean Family Novel, collective psychic, witch hunting, scapegoat mechanism, individual unconsciousness, shadow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